



논문목록

W. B. Bunn III, J. R. Bender, T. W. Hesterberg, G. R. Chase, and J. L. Konzen. Recent studies of man-made vitreous fibers : chronic animal inhalation studies. *J Occup Med* 1993 ; 35(2) : 101-113

Adrienne Feldstein, Barbara Valanis, William Vollmer, Nancy Stevens, and Christopher Overton. The back injury prevention project pilot study :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back attack, an injury prevention program among nurses, aides, and orderlies. *J Occup Med* 1993 ; 35(2) : 114-120

Glorian Sorensen, Harry Lando, and Terry F. Pechacek. Promoting smoking cessation at the workplace : results of a randomized controlled intervention study. *J Occup Med* 1993 ; 35(2) : 121-126

Peter A. Boxer. Assessment of Potential Violence in the paranoid worker. *J Occup Med* 1993 ; 35(2) : 127-131

Morton L. Kasdan, and Lisa A. June. Returning to work after a unilateral hand fracture. *J Occup Med* 1993 ; 35(2) : 132-135

Robert C. James, Harris Busch, Carlo H. Tamburro, Stephen M. Roberts, John D. Schell, and Raymond D. Harbison. Polychlorinated biphenyl exposure and human disease. *J Occup Med* 1993 ; 35(2) : 136-148

John F. Wade III, and Lee S. Newman. Diesel Asthma : reactive airways disease following overexposure to locomotive exhaust. *J Occup Med* 1993 ; 35(2) : 149-154

Dag G. Ellingsen, Marit Bekken, Leif Kolsaker, and Sverre Langard. Patients with suspected solvent-induced encephalopathy examined with cerebral computed tomography. *J Occup Med* 1993 ; 35(2) : 155-160

Frederick L. Brancati, Michael J. Hodgson, and Michael Karpf. Occupational Exposures and Diseases among Medical Inpatients : Prevalence, Association, and Recognition. *J Occup Med* 1993 ; 35(2) : 161-165

A. Gaboury, D. H. Burd, and R. S. Friar. Workplace protection factor evaluation of respiratory protective equipment in a primary aluminum smelter. *Appl Occup Environ Hyg* 1993 ; 8(1) : 19-25

G. L. Kennedy, Jr., W. J. Brock, and A. K. Banerjee. Assignment of skin notation for threshold limit values chemicals based on acute dermal toxicity. *Appl Occup Environ Hyg* 1993 ; 8(1) : 26-30

A. M. Sass-Kortsak, C. R. O'Brien, P. R. Bozek, and J. T. Purdum. Comparison of the 10-mm nylon cyclone, horizontal elutriator, and aluminum cyclone for silica and wood dust measurements. *Appl Occup Environ Hyg* 1993;8(1) : 31-37

S. R. Woskie, P. Shen, M. Finkel, E. A. Eisen, T. J. Smith, R. Smith, and D. H. Wegman. Calibration of a continuous-reading aerosol monitor (miniram) to measure borate dust exposures. *Appl Occup Environ Hyg* 1993;8(1) : 38-45

W. M. ter Kuile, B. Knoll, and P. G. M. Hesselink. Measurement and imaging of gases in industrial environments with the infrared gas cloud scanner. *Appl Occup Environ Hyg* 1993;8(1):46-54

K. Tait. The workplace exposure assessment workbook (WORKBOOK). *Appl Occup Environ Hyg* 1993 ; 8(1):55-68 ♣



주요논문초록

『디젤 천식』

-기관차 배기물질 과폭로에 의한 반응성 기도 질환-

저 자 : John F. Wade III,

Lee S. Newman.

출 처 : J Occup Med 1993;35(2):149-153

이 연구는 14년에서 25년 동안 철도회사의 차장, 제동수로 일한 3명에서 디젤 배기물질에 의해 천식을 일으킨 증례에 관한 보고로 디젤 배기물질에 의한 과폭로가 천식을 일으켰다는 첫보고서이다.

디젤 배출물은 다양한 종류의 유기화합물(organic compounds adsorb)을 포함하는 복합물질로 질소산화물, 황화산화물, 알데하이드 및 탄소입자를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 천식의 진단방법으로 증상, 폐기능 검사, 메타콜린(methacholine) 또는 운동에 의한 기도의 과반응성을 측정 사용하였다. 3증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 첫째, 3명 모두 과반응성, 기도류의 제한, 기관지 확장제에 의한 가역반응 및 지속적인 천식증세를 보였다. 둘째, 3명 모두 과거병력상 천식 및 중요한 다른 폐기도 질환이 없었고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 셋째, 디젤 배출물질에 과노출후 수시간내 증상이 나타났다. 넷째, 3명중 두명의 경우 과노출에 의해 첫증상이 나타났을 때 입원, 치료하였다. 다섯째, 3명 모두 기관차 디젤 배출물질에 재노출시 증상이 심해졌다. 여섯째, 3명중 1명이 최고호기유량(Peak expiratory flow rate records)에서 또한 3명중 2명에서 감소된 폐용량에서 정상 FEV₁/FVC비를 갖는 가역적 제한(reversible restriction)의 전형적 질환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반응성 기도질환의 원인으로 디젤 배출물질이 직접원인이 된다는 첫 보고서라는데 의의

가 있다.

『유기용제 유한성 뇌증환자의 대뇌 전산화 단층촬영 소견에 관한 연구』

저 자 : DagG. Ellingen, Marit Bekken, Leif Kolsaker, Sverre Langard.

출 처 : J Occup Med 1993 ; 35(2) : 155-160.

이 연구는 Telmark Central Hospital 산업의학과로 후송 입원한 유기용제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85명의 환자에 있어서 뇌 위축과 유기용제 노출과의 관계를 대뇌 전산화 단층촬영 진단에 의해 규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환자군을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첫번째 집단은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뇌위축 외에는 뇌위축을 일으킬만한 위험이 없는 집단이고, 두번째 집단은 1년 이상 주당 200ml 이상의 음주를 하는 집단이고, 세번째 집단은 알려진 간질, 신경증, 정신질환, 뇌혈관질환 등 뇌위축을 일으킬만한 질환을 갖고 있으며, 네번째 집단은 여성이다. 환자들의 평균 혼합유기용제 노출기간은 22.9년이며, 두번째·세번째 집단이 31%를 차지하고, 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이 두 집단의 뇌위축 유병률은 58%로 나타났으며, 뇌위축도 첫번째 집단에 비해 명확했고, 첫번째 집단의 뇌위축 유병률은 20%로 나타났으며 위축의 정도도 심하지 않았다. 여성에서는 전산화 단층촬영상 뇌위축 소견을 보인 환자는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노출기간과 뇌위축 관련지표와의 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 3뇌실의 폭, 양전두엽비(bifrontal ratio), 그리고 bicaudate ratio는 연령과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가 후향성이고, 각 집단 분류의 타당성이 결여될 수도 있으며, 기타 몇가지 제한점에 의해 유기용제 사용과 뇌위축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문제가 있다. ♣